

#해시태그

해(解,답)가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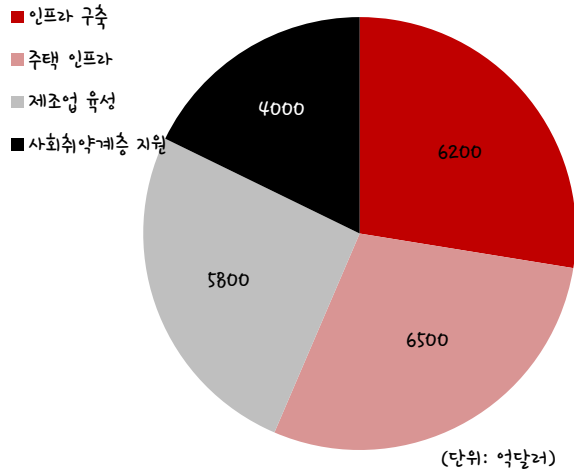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2021/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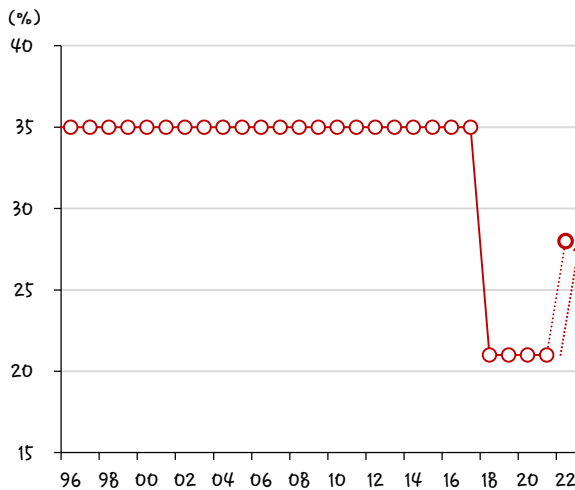
드디어 공개된 바이든표 경기부양책

2.25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세부 내용



자료: SK 증권

미국 법인세 기존의 21%에서 28% 인상될 예정



자료: Bloomberg, FRED, SK 증권

마침내 바이든 행정부가 2.25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는 향후 8 년에 걸쳐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다리와 교량 등 인프라 구축에 6,200 억달러, 주택 인프라 구축에 6,500 억달러, 제조업 지원 및 육성에 5,800 억달러,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4,000 억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중장기 경제 프로그램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재원조달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기존의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개인 소득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이 바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25%로 인상이 점쳐졌던 법인세가 28%까지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추정치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업이익 증가→주가 상승을 경험했던 입장에서 세금인상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정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법인세 인상 소식은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정책적인 지원으로 인해 법인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업종의 매력이 높아질 시기다. 건설, 전자재, 철강 등의 인프라투자 관련 업종,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그린업종, 5G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육성에 따른 반도체 및 통신업종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도 이를 잘 뒷받침한다.